

止攝 之韻의 중고음에 대하여

김 대 성*

(e-mail: hanbyeol@chonnam.ac.kr)

目 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3.2 萬葉假名 |
| 2. 베트남한자음과 티베트한자음 | 4. 之운 재구음의 검토 |
| 2.1 베트남한자음 | 4.1 선행학자의 재구음 |
| 2.2 티베트한자음 | 4.2 재구음의 검토 |
| 3. 한국전승한자음과 萬葉假名 | 5. 之운의 중고 재구음 |
| 3.1 한국전승한자음 | |
-

1. 들어가는 말

중고음(中古音 Ancient Chinese)의 추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그 성과 또한 상당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선행학자들은 자료를 사용할 때,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즉 자신의 재구음의 타당성을 위해 적당한 자료만을 취사선택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한 자료를 사용하였던 당시의 관점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자료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일본 자료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마치 현대한국어나 현대일본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를 함으로써 그 연구 결과가 성과에 비해서 결과의 타당성이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고음 재구의 일환으로써 止攝 微운에 이어 그 두 번째로써 止攝 之운의 중고음을 재구 또는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본고의 결과는 止攝 치음 4등자가 한국전승한자음에서

* 전남대학교 부교수 고대일본어학

/o、/로 반영된 사실이 중고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은 용어인 간접자료와 직접자료 등에 대해서는 김대성(2012)에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베트남한자음과 티베트한자음

2.1. 베트남한자음

베트남한자음(三根谷徹 미네야 토오루 1993:470-471)¹⁾의 之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²⁾

<3등>

[見k³]ki 姬其基碁棋箕謀/cơ 姬基箕; ki, kỳ 紀己; ký 記

[溪k⁴]khi 欺/khư 祛/kì, kỳ 魅; khi 起杞杞/khởi 起/ki 杞/dĩ 芑; khí 亟

[羣g]ki, kỳ 其淇碁期琪祺碁其旗祺驕麒麟/cờ 棋/cơ 碁碁期/kỳ 碁/ky 碁; ×; ki, kx 忌

[疑ŋ]ngghi 疑; nghĩ 擬儼礙礙; ×

[曉h]hi 熙嘻嬉禧俟; hi 喜熹嬉; hí, hý 嬉喜

[于u] ×; hī 矣; ×

[影·]y 醫噫; ×; ý 意/ỳ 意

[知t] ×; tri 微徽; trí 置

[徹t⁴]si 癡痴齧/xi 癡/xuy 答; si 恥祉; ×

[澄d]trì 治持/chì 持; trī 峙痔; trị 值治/chị 值

[娘ŋ] ×; nhī 你; ×

[來l]li, ly 釐嫠犛裡狸/ly 莉; lí, lý 里裡裡理裏鯉李; lai 吏

[日r]nhi 而沍栢肺陌輻/nhì 虺; nhī 耳;nhị 餌珥岬則/nhī 餌

[莊tʂ]tri 蓄淄緇輻鷓籬/chi 緇/truy 蓄; tri 滓第; ×

[初tʂ⁴]ty 颶/huy 輻; ×; /xí 廁

1) 일본어의 우리말 표기법은 필자의 표기법에 의한다.

2) 三根谷徹는 之운을 3등과 4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배열하였다. 필자는 3등과 4등으로 구분하고 성모별로 다시 재배열하였다. 또한 ‘;’는 평성, 상성, 거성의 구분 표시이다.

3) 성모 재구음은 藤堂明保外(토우도우 아키야스 1971:24-25)에 의한다.

[牀dz] ×; sī 士仕/thì 柿/ti 柿; sṽ 事
 [疏s] ×; sṽ 史使; ×
 [z] ×; sī 俟埃駭; ×

<4등>

[精ts]tṽ 茲滋孳磁噉鐵孜/ti 茲滋鐵; tṽ 子仔籽籽梓/ti 梓/ti 子; ×
 [清tsʰ] ×; ×; thú 載
 [從dz]tṽ 慈磁; ×; tṽ 字特孳
 [心s]tṽ 思惇惇總司伺絲緘/ti 司惇絲蘇; tṽ 蕙/ti 蕙謔臬/nhī 臬/bi 萑; tṽ 筍伺
 思/tṽ 筍
 [邪z]tṽ 詞祠辭; tṽ 似姒祀禩/ti, tṽ 巳/dī 汜/rī 汜/tṽ 耜/ti, luỹ 耜; tṽ 寺嗣/tṽ
 飼

[照f]chi 之芝; chi 止址祉芷趾趾底峙; chí 志痣惹誌織識
 [穿fʰ]xuy 嗤熾/suy 嗤熾; xi 齒; xí 熾熾/si 熾
 [審f]thi 詩; thi 始/thuy 始; thí 試弒僿
 [禪z]thi 時時時時/thòì 時; thì 市恃; thì 侍/trì 侍
 [喻j]di 怡飴貽詒台甌頤昇/ri 飴貽頤/gi 頤; dī 以苾已/rī 苾; dī 異昇/rì 異廩/tṽ
 食

之운은 止攝에 속하며 『韻鏡』에서는 내전제8개(內轉第八開)로 개구음만 있으며 순음은 존재하지 않는 3·4등단운(單韻)이다. 위의 예를 전체적으로 보면 3등과 4등 즉 등(division)의 구별 없이 i/y[i]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총 256자 중에서 189자가 i/y[i]로 나타나 73.8%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73.8% 이외의 반영에는 커다란 특징이 있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한국전승한자음에는 止攝의 경우 유독 치두음은 /이/가 아니라 /으/로 반영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베트남한자음에도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치두음의 경우 i/y[i]가 아니라 u'[w]로 반영되었는데 총 48자로 1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i]와 [w]가 약 92.6%에 이른다. 그 밖으로는 uy[w] 9자, o'[ə] 7자, o'i[əi] 2자 그리고 ai[ai]가 1자씩 보인다. o'와 o'i의 반영은, 특히 o'i의 반영은 중고음 이전 어느 시기의 음일 가능성이 크다. 3등개음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추정되며, 4등 개음은 운미음과 함께 핵모음을 탈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nghiên cú'u(研究)·tien bo(進歩)와 같이 베트남어에는 이중모음이 ia/iê/yé[iə]처럼 존재하므로, 적어도 [iə]의 음을 지닌 예가 잔존해야 하지만 한 예도 없다는 것은 핵모음의 탈락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2.2. 티베트한자음

티베트한자음의 예(羅常培 루어 츠앙페이 1933:43)⁴⁾는 다음과 같다.⁵⁾

<3등>

[見k]記gyi 記ke'i [溪k']起k'i 起k'i [羣g]其gi 其k'i 其gi 其gi [疑ŋ]疑'gu 疑'gi

[影·]意'i 意'i 意'i [曉h]喜hi 喜hi 希(微운임)zi

[牀dz]士ci 士ci 事ce 事ci 事ci

[日r]耳zi 耳zi 而zi, zu 而ze [來l]理li

[徹t']癡c'i, ts'a [澄d]治li 治c'i 持ji 持ji 持ji 值c'i 值ji

<4등>

[喻j(于q)]貽yi 異yi 異yi 以yi, 'i, yi'u 以yi 以yi 已yi 已yi 已yi

[精ts]茲ts'i 子ts'i 子tse, ci 子tse [從dz]慈ts'i [心s]思si 思si 思si [邪z]祀si 嗣si 似si

[照f]之ci, tsi 之ci 之ci [禪z]時ci'i 時ci 時ci 市ci 侍ci

기본적으로 티베트한자음도 베트남한자음과 같이 3등과 4등의 구별 없이 i/[i]로 반영되었다. 티베트한자음의 자료는 9C경의 한자음을 티베트 문자로 적은 문헌과 티베트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千字文』과 『大乘中宗見解』는 漢藏對音 자료이고, 『阿彌陀經』과 『金剛經』은 藏文譯音 자료이다. 이 네 자료 모두 3등과 4등 구별 없이 주로 [i]로 반영되었는데, 베트남한자음의 치두음이 i/y[i]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u'[u]로 반영된 점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티베트한자음은 성모에 따른 차이 없이 [i]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i] 이외에 事ce[ce]·子tse[tse]·而ze[ce]·記ke'i[kei]와 같이 [e]음을 지닌 예가 눈에 띈다. 이돈주(1990:72-89)는 치두음 4등의 /e/의 반영을 12C음의 유입으로 보았는데, 티베트한자음의 자료들은 9C경으로 추정되므로 [e]의 반영을 한국한자음의 치두음 4등 /e/의 반영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e]의 반영이 치두음(子)에 머물지 않고 아음 見모의 記, 치상음 牀모의 事, 그리고 반치음 日모의 而와 같이 3등자에도 고루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중고음 이전의 어느 시기음의 잔재로 추정된다.⁶⁾

4) 중국어 우리말 적기는 씨케이시스템(김용옥 1992:349-361)에 의한다.

5) 羅常培는 之운을 3등과 4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3등으로 처리하였다. 필자는 3등과 4등으로 구분하고 성모별로 다시 재배열하였다.

6)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연구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3. 한국전승한자음과 萬葉假名

3.1. 한국전승한자음

之운의 한국전승한자음(『훈몽자회(1527년)』·『천자문(1575년)』·『신증유합(1576년)』)의 예는 다음과 같다.

<3등>

[見k]基箕기/姬희 [溪kʰ]起기 [羣g]旗基鎡麒기
 [徹tʰ]癡티/筴티 [澄d]痔티 [娘ŋ]你니
 [莊tʃ]輜緇츠/滹지 [初tʃʰ]廁(치,츄)츠 [牀dʒ]士事(쓰)스/柿시 [疏s]史스
 [影·]螿意의 [曉h]曉희
 [日r]榘輻耳(이)餌(이)△/珥(△)이 [來l]狸里理麗麗縷裏(니)吏(니)리/李니

<4등>

[精ts]滋鎡鷲孺子籽~~즈~~/梓지 [從dz]慈~~즈~~孳孳孳字孳~~즈~~ [心s]絲絲司筭스 [邪z]祀耜寺(시)詞祠飼스
 [照f]芝沚趾志痣지 [穿tʃʰ]蚩齒치 [審j]詩시 [禪z]時峙蒔市시
 [喻j(于q)]頤苡貽飴萁이

3등의 경우 아음과 후음은 /의/로, 치상음은 /으/·/의/·/이/·/의/로 나타나며 나머지 음은 주로 /이/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4등의 경우는 치두음은 /으/로 정치음과 후음은 /이/로 반영되었다. 베트남한자음과 비교하면 4등 치두음이 u[ɯ]로 반영된 점과 유사하게 /으/로 나타난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치상음의 경우 베트남한자음의 경우 i[i]가 23예 중 18예로 78%를 차지하고 u[ɯ]가 史使sǐ·事sǐ 3예, uy[ui]가 蓄truy·輜huy 2예로 그 예는 적지만 마치 한국한자음의 /으/(4예)와 /의/(3예)에 대응하는 예가 보인다.

그런데 止攝 치두 4등음이 한국전승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으/로 반영된 이유에 대하여, 박병채(1986:188-191)는 有坂秀世(아리사카 히데요)가 /으/의 반영을 근거로 한국한자음이 10세기 개봉음(開封音)에 기초한다는 주장과 달리, Karlgren과 有坂秀世의 상고 추정음을 근거로 /으/는 상고음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이돈주(1990:78-79)는 王力(왕리)가 精系字가 tsi>tsi(ts'i>ts'ì, si>si)로 변한 시기를 12세기 이전으로 추정할 것을 근거로, 치두 4등의 /으/의 반영은 12세기경의 치두음의 운모가 i>i[ɿ]로 변한 것을 /으/([ɿ])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상고음설과 12C설 등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자는 중고음설의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따라서 /*ö*/로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3등 아음의 /*의*/ 이외에는 3·4등 모두 /*이*/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아음 /*의*/의 반영은 다음 장의 萬葉假名(만요우가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3.2. 萬葉假名

萬葉假名の 之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등

[見k]己kö/己kī基kī記kī紀kī [羣g]其gō忌kö期gō碁gō [疑ŋ]疑gi擬gi

[影·]意o

[牀dz]事si士zi仕zi

[日ř]珥zi耳zi餌zi而ni珥ni耳ni [來l]里rö/里ri理ri釐ri

[徹t]答ti恥ti [澄d]治di

4등

[喻j(于q)]已jō/已i以i異i怡i

[精ts]茲si子si [清tʰ]惇si [從dz]慈zi [心s]思sō思si司si伺si儻si [邪z]詞si寺si嗣si
寺zi辭si

[照f]之si志si止tō [審f]詩si始si試si [禪z]時si時zi

3등의 경우 아음은 /*ö*/와 /*이*/로 나타나는데, /*ö*/의 경우는 5.2에서 언급하겠지만 중고음 이전 어느 시기음의 반영으로 보이며 이것은 來모의 里가 /*rö*/로 반영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影모의 意가 한국한자음에서 /*의*/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또한 같은 아음이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투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o*/로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이 이외에는 설상음·치상음·반설반치음 모두 /*이*/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중고음은 /*이*/와 /*이*/로 나타난다. 4등의 경우 ‘喻모 已/jō/·心모 思/sō/·照모 止/tō’와 같이 /*ö*/로 반영된 것은 3등과 마찬가지로 중고음 이전의 반영음이다. 그 이외에는 치두음·정치음·후음 모두 /*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4등은 중고음에서는 모두 /*이*/의 반영을 보이고 있다.

4. 之운 재구음의 검토

4.1 선행학자의 재구음

3·4등단운인 之운에 대한 선행 학자들의 재구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Bernhard Karlgren(1963:263-266): [(j)i]
 陸志韋(루 즈웨이 1985:44-48): [i(ϙ)i(>i)]
 王力(1985:226-227): 脂旨至質①⁷⁾ [i, ui, it, uit]
 董同龢(똥 통후아 1993:166-168): [-i]
 严学窘(엔 쉬에천 1990:73-74): [ji]
 藤堂明保(1980:264-265): /r-jej/ ([ɾei] [iei])(「眞」に並行) ただし六朝時代には/r-jəj/([ɾəi] [iəi])
 河野六郎(코우노 로쿠로우 1993:103-111): [-ji]⁸⁾ (脂/之) [-ji] (脂/之)
 平山久雄(히라야마 히사오 1966:42-68): /i_Λʷ/[iǎʷ] (또는 [iʷ])
 E.G.Pulleyblank(1984:203-204): [i]

각 학자들의 재구음의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Bernhard Karlgren은 한국과 베트남한자음, 한음과 오음 그리고 현대중국방언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그의 (j) 표기는

But in our present category U-V we find, contrary to the general rule, yodized initials even before vocalic *i* : 124 a and 125 a Anc. *kji* (here, then, it is necessary to express the *j* : *kji*, as indicated by the yodized series of fan-ts'ie spellers; the typographical simplification is not applicable here). (p.264)

와 같이 성모의 요드화(yodization, a mark of palatalization)를 나타내며 활음(glide)이 아니므로 운모 [i]는 중설모음의 [i]가 아니라 전설모음임을 보여준다. 陸志韋는 현대중국방언음과 외국의 한자 차용음은 재구에 도움이 안 되어 상고음과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의 '(>i)'는 절운 시대의 방언음 중에 이미 단모음화한 것을 나타내고, (ϙ)는 [ə]에서 변한 약모음을 나타낸다.⁹⁾ 王力은 四声等子를 근거로 之·脂·支운을 같은 음으로 추정하였으며, Karlgren의 支운 추정음과 다른 이유를

高本汉把脂韵拟测为[i, ^wi], 之韵拟测为[i], 都是对的; 他把支韵拟测为[iě, i^wě], 也不算很错, 因为如上文所论, 在隋唐初期, 在某些方言里, 支韵还是独立的。(p.227)

7) ① 《四声等子》在止攝虽只标为脂旨至质, 但是图内兼收支纸置, 之止志, 昔锡等韵的字。

8) 필자의 표기로 바꾸면 [tʃi]가 된다.

9) (>i) 表示在《切韻》時代的方言裏已經可以單元音化。(ϙ)表示從ə變來的弱元音。(pp.47-48)

와 같이 Karlgren의 추정음은 수당 초기의 어느 지방의 방언음에서 나타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董同龢는 福州과 厦門 지방음에서 [i]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그의 재구음 [i]는

關於各韻母的標音，有一點要說明的，就是：遇主要元音是-i時三等韻母必有的介音-j- 都略去。

와 같이 실제로는 [ji]이다. 이것을 필자의 표기로 바꾸면 [ɟi]로 추정한 것이다. 严学寔은 재구음과 근거가 董同龢와 같다.

藤堂明保는 之운이 오음에서 ㄷ단으로 나타나고 萬葉假名에서 ㄷ단을류로 나타나지만, 한음에서는 欣·眞·侵운이 ㅅ단으로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ㅅ단으로 반영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의 재구음의 근거에서는 /i/의 반영을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河野六郎는 之운과 脂운이 이미 합류한 것으로 추정하여 脂운에 之운을 편입시켰으므로 脂운의 근거를 제시하면, 萬葉假名の ㄱ류와 ㄴ류의 반영, 한국한자음에서 ㄱ류는 /이/로, ㄴ류는 /의/로 나타난다는 점과 베트남한자음에서 순음이 ㄴ류에서는 순음으로 나타나지만 ㄱ류에서는 치음과 설음으로 반영된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平山久雄는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Pulleyblank처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之韻牙喉音がC類であつたと知ることにより、之韻が音韻論的に奥舌主母音を含むものとして、脂韻開口とは異なる音価を有したことが確定されるのである。(p.54)……中古音では之韻だけに/-w/が残されたわけである。やがて八世紀末の慧琳音義の音韻体系で之韻が他の止摂諸韻と合流するに及び、音素/-w/は消滅することとなつた。音声としては、之韻/-iɿw/は大略[-iəɿ]の如くであつたと考える。或は殆ど[-iɿ]であつたかも知れない。すなわち、/-w/は介音/-i-/の同化を蒙り調音点を大きく前進させて[-ɿ]となつていた。主母音/ɿ/は介音・韻尾の双方から同化と吸収を受け微かな[ə]音としてあらわれるか、或は全く音声面にあらわれなかつた、と考える。……なお、之韻の韻尾[-ɿ]は微韻の韻尾[-i]に比べ、舌面のより鈍感な部分で調音されるために、/ɿ/に該当する[ə]音との間に調音上の明瞭な区切りをつけにくく、そのため[ə]音を吸収する程度が[-ɿ]において一層大きかつたのだ、と考える。……われわれの説がこれらと異なる点は、切韻音推定の根本資料である切韻系韻書の反切そのものの内部に、推定の鍵を見出したことにある。(pp.55-56)

즉 그는 Karlgren이 사용한 자료를 인정한 후 핵심은 절운계운서의 반절(C類

上字)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특히 운미음을 [i]가 아니라 설면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여 조음되는 음으로써 약한 [ɿ]([[◌]])음을 흡수할 정도로 추정하였다. E.G.Pulleyblank는 之운을 중설의 [i]로 재구하였는데 그는 Karlgren의 재구음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구음에서 개음 -j(glide)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It is true that a special rule is required, restoring a -j glide, to account for the change of EMC -wi to LMC -yj, but to assume -j glides in *kaikou* would complicate the rules for the merger of EMC -i with -i and for the LMC loss of -i after sibilants, giving -ɾ and -ʌ. To assume that -i had no final glide in EMC helps to explain the fact that it merged first with -i and -iä which were all *tongyong* by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while 微 -ij remained distinct for a longer time.(pp.203-204)

이상과 같이 之운의 선행 학자들의 재구음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상의 음을 간추리면 [i](여기에는 3등의 경우 [ɿ]도 포함)가 가장 많고, 중설의 [i], [ɿi]([~~ɿ~~i])/[i], [iə] 그리고 [rei/iei]와 [i(ɸ)i]이다. [i(ɸ)i]는 [i[◌]]인지 [i[◌]]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陸志韋는 微운을 [iəi]로 재구하였으므로 [i[◌]]는 微운과 핵모음이 같으므로 제외된다. 그러면 [i[◌]]가 남는데, [i[◌]] 또한 [iəi]의 표기가 있으므로 아마도 [i[◌]]보다도 더 약한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재구음의 검토

그러면 이상의 음을 가지고 2·3장에서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之운 중고음이 [i](3등[ɿi]<Karlgren은 [i]¹⁰>, 4등[i])이었다고 한다면, 베트남이나 티베트 자료의 설명과 4등의 한국한자음과 萬葉假名の 음차자 사용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특히 3등의 한국한자음의 아음과 후음의 /의/와 萬葉假名の 아음의 다음 예와 같이,

式部大輔石上堅魚朝臣歌一首 [左注]右神龜五年戊辰大宰帥大伴卿之妻大伴郎女遇病長逝焉。于時、勅使式部大輔石上朝臣堅魚遣大宰府弔喪并賜物也。其事既畢、馭使及府諸卿大夫等共登記夷城而望遊之日乃作此歌。(万葉集 권8 1472년)

10) Karlgren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之운을 (j)i로 추정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쇄의 편의상(typographical simplification) j를 생략했던 것을 之운에서는 반절상자에 3등자를 사용함으로써 생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의 (j)i는 예를 들어 성모가 k인 경우로 설명한다면, k(j)i는 운모가 [i]가 되는데 만일 성모가 k(j)가 아니라 k라 하더라도 전절모음 [i]에 의해 k는 k(j)가 되어 그 실현음이 똑같이 [k(j)i]=[ki]가 된다.

珥比麼利 菟玖波鳩須擬氏 異玖用伽禰菟流(日本書紀歌謠 25番)

耶麼能謎能 故思麼古喻衛爾 比登涅羅賦 宇麼能耶都擬播 鳴思稽矩謀那斯(日本書紀歌謠 79番)

記擬가 /i/로 쓰인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다. [i]는 [i]와 [i]가 조음점이 같아서 한국한자음의 경우 아음도 /이/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萬葉假名 또한 갑류인 /i/로 나타났을 것이다. [i]로 추정할 경우, 여기에는 3등과 4등 구분없이 [i]로 재구한 것인데, [i]에서의 설명과 같이 3등과 4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rei]¹¹⁾와 [iei]의 경우 3등과 4등에 개음의 차이가 있는 점은 유용하지만, 핵모음이 [e]인 이상 베트남한자음에 [e]의 반영자를 기대할 수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상당수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소수의 예가 아니라 그 예가 하나도 없다는 점은 이 재구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티베트한자음에 記ke'i·事çe·而že·子tse와 같이 [e] 혹은 [ei]의 흔적을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논한 바대로 중고음 이전 시기음의 잔재로 볼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설명이 어렵다. 한국한자음의 경우에 [e]는 가4등운(假4等韻)인 齊운 개구음([ei]로 추정됨)의 예가

[見k]計稽鷄계 [溪k']啓契계 [疑ŋ]猊鯢霓예

[影·]攄예 [曉h]醞해 [匣h]蹊系계

[端t]堤邸帝테/諦蒂테[透t']體涕테/梯테 [定d]蹄啼弟테데 [來l]藜禮例儷례/戾黎려

[精ts]濟霽제 [清ts']妻처 [從dz]齊齋제 [心s]細洗세

[幫p]閉髮폐 [滂p']陞陛폐

와 같이 기본적으로 핵모음 [e]가 /여/로 수용되었는데, 之운4등 [iei]는 개구개음이 강한 [i]이므로 단순히 /예/의 반영이 아니라 [i]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음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점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핵모음 [e]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의 형태는 있었을 것이며, 더군다나 3등은 [rei]로 개음이 약하므로 [i]를 수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와 같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3등과 4등의 반영음은 /의/·/으/·/이/로 /예/의 반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萬葉假名の 경우에도 3등의 [rei]는 齊운의 計와 鷄가

暮相而 朝面無美 隱爾加 氣長妹之 廬利為里計武 (萬葉集 권1 60번)

11) [I]는 [i]의 이완음(lax)이 아니라 [i]와 [i]의 중간음을 나타낸다.

椰勾毛多菟 伊頭毛多鷄流餓 波鷄流多知 菟頭邏佐波磨枳 佐微那辞珥 阿波礼
 (日本書紀歌謠 20番)

와 같이 /ke/ 즉 갑류의 [e]로 사용된 것처럼 주로 ㄱ단으로 쓰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i/와 /i/로 나타난 사실로 보아 이 재구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ɰi])¹²⁾와 [ɰi]의 경우 전자가 3등, 후자가 4등인데, 4등의 경우는 비록 4등 개음을 [i]가 아니라 [ɰi]로 추정한다고 해도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베트남과 티베트한자음에서 주로 [i]로 반영되었고, 한국한자음에서 /이/와 萬葉假名에서 /i/로 수용되었으므로 중고음 이전 시기음의 고려를 제외한다면 재구음으로서 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3등의 [ɰi]의 경우는 어떠한지 검토해 보자. 먼저 베트남한자음의 경우 u'i나 u'y 즉 [ui]가 가장 근접한 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 모음체계에서는 [ui]와 같은 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가장 근접한 음으로는 ui/uy[ui]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예는 筍 xuy·蓍 truy·輜 truy와 같이 3등에 존재한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uy는 4등에도 耜 lu·嗤媼 xuy/suy·始 thuŷ와 같이 존재하므로 3등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그 예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중고음과 연관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예가 적다는 것은 수용 시기가 달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ui]로 보면 [u]가 합구성을 지닌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之운은 개구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ɰi]의 근원을 4등 치두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u'[w]로 추정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ɰi]는 3등이지 4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ɰi]의 해석은 개음을 탈락시킨 [i]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티베트한자음도 티베트어의 모음체계에서 [w]가 존재하지 않고 더군다나 [ui] 또는 [ui]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등과 4등을 구별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된다. 그리고 한국전승한자음의 /의/의 반영과 萬葉假名の /i/의 반영은 [ɰi]의 3등개음의 중설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구음 [ɰi]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중고음 이전 시기의 萬葉假名の /ö/의 반영과 연관 지었을 경우에 之운의 변천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맹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iǎɰ](또는 [iɰ])의 경우, 4.1의 인용에 의해 음성기호를 바꾸어 표시하면 [iǎɰ](또는 [iɰ])가 되는데, 平山久雄은 운미음 [ɰ]에 의해 핵모음 [ǎ]가 흡수될 정도이므로 [iɰ]와 같은 음으로도 추정한 것인데, 이와 같은 [iɰ]([iǎɰ]를 포함해서)는 베트남과 티베트한자음에서 3·4등이 구별 없이 반영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승한자음의 /의/와 萬葉假名の /i/의 반영을 설명

12) [ɰi] 대신에 [ɰi]로 설명하기로 한다.

하기 어려운데, 만일 [ɔ]가 [ɪ]에 흡수되지 않았다면 /의/와 /i/의 반영은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운미음이 긴장된(tense) 음이 아니라 이완된(lax) 음이기는 하지만, 마치 영어의 sick나 廣東語의 京(ging¹ [kɪŋ])이나 極(gik⁶ [kɪk])의 단모음이 음성학적으로 [ɪ]로 표기되지만 음색은 [e]에 가까운 음이 되는 것과 달리 [i]에 가까운 음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미음이 [i]가 아니라 이완된 [ɪ]이기 때문에, 중고음 이전에 강한 중설의 핵모음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之운이 중고음에 이르러 핵모음의 약화 단계를 거쳐 중당(中唐)이후에 탈락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5. 之운의 중고 재구음

본 장에서는 之운의 중고음을 재구하기로 한다. 또한 나가는 말을 대신하기로 한다.

필자는 之운의 중고음을 [i̯i]와 [i̯i]로 추정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승한자음에 의한다. 한국전승한자음은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之운3등은 성모에 따라 반영음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4등의 경우 치두음은 일률적으로 /으/로 정치음과 후음은 /이/로 반영되었는데, /으/의 반영은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기 때문에 제외하면, /이/의 반영은 개구개음 [i]와 운미음[i]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4등 개구개음의 경우 한국전승한자음에서는 개구개음의 반영을 그대로 보여 주는데, 예를 들면,

<東운4등>

[喻y(于u)]育(혹)毓鬻

[知t]中등/竹뚝/忠衷뚝/築뚝 [澄d]冲狃蟲뚝/逐蚰舳軸뚝 [來l]窿릉/六(육)陸륙

[心s]宿(슈)夙(슈)宿숙/菘송 [照ʃ]粥죽/終蠡중 [穿ʃ]莠銃충 [審ʃ]叔菽숙 [禪ʒ]孰熟塾淑숙 [日r]戎(웅)웅/肉(숙)육

<魚운4등>

[喻j(于u)]與餘蝮予鸞輿蕢여/預豫譽예

[知t]瀦더 [徹t]擣樗楮더 [澄d]儲苧杼筴더/苧서 [娘n]女녀 [來l]呂盧閭侶(녀)旅膂鑪러

[精ts]蛆沮저 [淸tsʰ]疽저 [心s]絮셔 [邪z]序嶼셔 [照ʃ]渚저/諸제/煮翥자 [穿ʃ]處 처/杵저 [神dʒ]杼셔 [審ʃ]書鼠暑黍恕(저)셔 [禪ʒ]署薯曙墅셔 [日r]茹汝(여)茹셔

<諄운4등합구>

[見k]橘굴

[喻j(于q)]鵝(암)緇홀

[徹tʃ]椿춘/黜(출)툐/楯순 [澄d]菘툐 [來l]淪輪륜/葷룰

[精ts]雋준 [淸tsʃ]皴준 [心s]筍순/鉞술/隼순/恤홀 [邪z]旬순 [照ʃ]準俊稔준/肫둔

[穿ʃʃ]春춘/蠡준 [神ɕ]脣盾순/術술 [審ʃ]薺순/瞬(순)순 [禪ʒ]蕁(瓮)醇鶉순 [日ʃ]

閏(운)순

<麻운4등개구>

[喻j(于q)]也野冶夜야

[精ts]借차/置姐저 [從dz]襦(자)차 [心s]寫(샤)샤 [邪z]謝邪斜샤 [照ʃ]者緒炙(적)

柘자 [神ɕ]麯샤/射(샤/석)샤 [審ʃ]奢賒舍샤 [禪ʒ]社蛇샤

와 같이, 東운4등은 /옹/이 아니라 /옹/으로, 魚운4등은 /어/가 아니라 /여/로, 諄운4등 합구음은 /운/이 아니라 /운/으로, 麻운4등은 /아/가 아니라 /야/로 반영되어 개구개음 [i]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之운4등의 /이/의 반영에는 개구개음 [i]가 /이/로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주며, 또한 운미음도 [i]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의 반영은 개구개음 [i]와 운미음 [i]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핵모음이 어떤 음가이었던가인데, 微운이 개구음은 /의/로, 합구음은 /위/로 규칙적인 반영을 보이면서 몇몇 자에서는 脰弁/韃(13)와 緋/비·의 반영이 보이며, 특히 전자는 중고음 이전 시기음의 반영으로 추정되므로 중고음 이전 시기음과 중고음간의 관계를 한국전승한자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之운의 경우는 중고음 이전 시기음의 예가 존재하지 않아 핵모음의 추정이 쉽지 않다.

3등의 경우 설두음과 반설반치음이 /이/로 나타나 3등과 4등의 차이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之운이 3·4등단운이라는 점에 있다. 3·4등단운의 개구개음은 3등은 [ɿ]로 4등은 [i]로 추정되기 때문에, 3등의 경우도 4등과 같이 개구개음이 같은 전설모음인 [i]의 반모음이므로 3등의 /이/는 개구개음과 운미음의 반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설상음의 /으/의 반영과 달리 아음과 후음의 /의/의 반영에서 핵모음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의/의 반영에서 운미음의 /이/의 반영을 제거하면 중설모음인 /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중고음의 핵모음은 중설모음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사실은 萬葉假名の 사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뉴3등운이나 순3등운인 경우에 萬葉假名에서는 일반적으로 을류로 나타나는데, 止攝 중에서 支운과 脂운은

13) 김대성(2012) 참조.

14) 필자는 고대국어의 모음체계를 /이/= [i], /우/= [u], /으/= [ɯ ~ ə], /어/= [ɛ], /오/= [o], /으/= [ʌ], /아/= [a]와 같이 추정한다.

3·4등중뉴운이며 微운은 순3등운이므로 중설적인 개음에 의해서 3등이 을류로 쓰일 수 있었지만, 之운은 3·4등단운이므로 3등개음 [ɨ]에 의해서는 을류로 사용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之운 3등의 아음이 을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핵모음에 중설적인 요소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4등단운을 지닌 운에는 東·種·魚·虞·陽·蒸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을류가 나타나는 것은

安之比奇能 夜麻治古延牟等 須流君乎 許許呂爾毛知弓 夜須家久母奈之(万葉集 권15 3723번)

神左振 磐根已癡敷 三芳野之 水分山乎 見者悲毛(万葉集 권7 1130번)

와 같이 魚운([ɨo]로 추정)과 蒸운([ɨəŋ][iəŋ]으로 추정)으로 전자의 경우는 핵모음이 중설모음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후설모음으로 추정되는 魚운이 /ø/15)로 즉 중설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인가이다. 그 이유는 전설 개모음 [ɨ]에 있다. 3등개음은 4등처럼 직접적으로 그 흔적을 남기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핵모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후설 핵모음을 지닌 魚운이 전설 개음인 [ɨ]에 의해 중설적으로 이동함으로써 萬葉假名에서 /ø/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3·4등단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핵모음이 중설적이거나 또는 중설화함으로써 을류로 사용된 것처럼, 3·4등단운인 之운이 한국전승한자음에서 /으/로 반영된 것은 핵모음이 중설적이거나 중설화가 가능한 음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 중에서 중설적인 핵모음으로 판단하여 之운을 [ɨ^o]와 [i^o]로 추정한다. 그러나 강한 핵모음을 지닌 [ɨəi]와 [iəi]로 추정하지 않는 이유는 만일 이와 같은 음이었다면 한국전승한자음에서는 반드시 /예/와 /예/의 예가 상당수 존재하거나, 마치 성모에 따라서는 /의/와 /이/로 일률적으로 나타나듯이 일률적으로 /예/와 /예/의 예가 존재했을 텐데 3·4등 모두 /예/와 /예/의 예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3등의 [ɨ^o]는 개음과 핵모음으로 이루어진 [ɨ^o]가 운미음의 [i]에 의해 [ʷ]의 탈락이 예상되나, 4등 개음이 모음 [i]인 것과 달리 반모음의 [ɨ]이기 때문에 즉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ʷ]를 탈락시키지는 못하고 개음과 함께 /이/와는 구별되는 음을 이루게 되어 /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국어의 중설에는 /우/·/으/·/어/가 존재하는데 /우/([w])는 원순모음인 관계로 [ɨ^o]와 차이가 크고, /어/([ɛ])는 중모음이나 저모음인 [ə]나

15) 필자는 고대일본어를 8모음체계로 보며 특히 을류는 /i/=[ɨi](단, [ɨi]설도 배제하지 않는다), /è/=[ɛi(또는 ɛe)], /ø/=[ə]와 같이 추정한다. 김대성(2003:109-148) 참조.

[ɔ]음의 전사로 대부분 사용되었으므로 [ɨ^o]와는 음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으/인데 /으/는 [ɯ~ə]로 추정되므로 [ɨ^o]에 근사한 음은 아니지만 /이/와의 구별을 위해 차선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4등의 [i^o]는 강한 개음과 운미음에 의해 약한 핵모음 [ʷ]가 잘 들리지 않게 됨으로써 한자음의 전사 과정에서 탈락시켜 /이/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일본 고대 자료를 근거로 들 수 있는데 특히 萬葉集(만요우슈우)의 萬葉假名の 반영례를 주요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근거는 한국전승한자음보다도 유력하며 기타 다른 자료보다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자료의 시대가 명확하며, 그 시기가 중고음을 전후로 하여 수백 년에 걸쳐 있어서 자료의 분석에 의해 중국 성운학의 변화(演變)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之운은 /ö/·/i/·/i/로 세 가지 음이 공존하는데 3등 來모의 里와 4등 心모의 思의 경우,

八隅知之 我大王乃 朝庭 取撫賜 夕庭 伊縁立之 御執乃 梓弓之 奈加弭乃 音為 奈利 朝獵爾 今立須良思 暮獵爾 今他田渚良之 御執能 梓弓之 奈加弭乃 音為 奈里 (萬葉集 권1 3번)

와 같이 각각 /ri/와 /si/¹⁶⁾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권1 3번 노래는 『萬葉集(日本古典文學大系)』의 두주(頭注)와 『萬葉集注釋 卷第一』를 보면,

二:間人皇后。舒明天皇の皇女、天智天皇の妹、天武天皇の姉、孝徳天皇の皇后。天智四年(六六五)没。万葉初期の有名な歌人。なお中皇命を齊明天皇とする説もある。三:伝未詳。孝徳紀白雄五年に遣唐使の判官として見えている中臣間人連老か。四:老が歌を作ったか、歌を献ずる使であったかが問題になっているが、使であったろう。(p.10)

「中皇命」は諸説があつて決しなかつた。考の別記に春満の説に従ひ、舒明天皇の皇女間人皇后(孝徳の後)とし、中皇女命の誤としてよりそれによる者多く、命を女の誤とする者、交字は原文のま々とする者などあるが、間人皇女とする説が有力であつた。それに對して喜田貞吉博士は……と記した例などをあげて、今の場合には齊明天皇を申すと結論された。武田博士と次田潤氏がこの説に贊せられてゐる以外にはなほ多くの學者は疑問とされてゐる。しかし喜田博士の論は動かし難いものと私は信ずる。(pp.55-56)

16) 日本書紀 가요에는 思가 ‘故思麼古喻衛爾(79년), 鳴思稽矩謀那斯(79년), 思寐我簸多泥爾(87년), 思寐能和俱吾鳴(95년)’와 같이 4예가 보이는데 모두 알파군에 속한다.

와 같이 舒明天皇(629~641년)이 사냥을 나갔을 때 바친 노래로써, 작자에 대해서는 間人皇女(?~665년)설과 齊明天皇(655~661년)설, 그리고 間人連老설 등으로 나누지만, 이 노래가 萬葉集 시기 구분¹⁷⁾에 의하면 舒明天皇 때이므로 제1기에 속하며 특히 萬葉集의 초기 작품임이 분명하므로 600년대 전반기임은 분명하다. 또한 已의 경우 萬葉集에 총 10예가 보이는데 다음 노래는

明日香清御原宮御宇天皇代(天淳中原瀛真人天皇諡曰天武天皇 十市皇女薨時高市皇子尊御作歌三首 : 三諸之神之神須疑 已具耳矣自得見監乍共 不寢夜叙多(萬葉集 권2 156번)

와 같이 제3구와 4구가 정훈(定訓)이 없기 때문에 음차자(音假名)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작자가 高市皇子이므로 제2기의 작품인 것은 분명하며 다음의 권10 2011번 노래에 已가

天漢 已向立而 戀等爾 事谷將告 嬾言及者

와 같이 접두어 ‘이’로 사용되었는데, 권2 156번의 예를 제외하면 이 노래는 柿本人麻呂歌集에 보이기 때문에 萬葉集에서 가장 오래된 예이며 제2기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8예 또한 /i/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之운인 里·思·已가 600년대 전반기에 /i/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중고음의 유입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예를 보면,

大和国天皇、斯婦斯麻宮治天下名阿米久尔意斯波羅岐比里尔波弥已等世、奉仕巷宜名伊那米大臣時、百濟国正明王上啓云、万法之中、仏法最上也。(奈良県元興寺露盤銘)

故、天皇之女、佐久羅韋等由良宮治天下、名等已弥居加斯支夜比弥乃弥已等世、及甥、名有麻移刀等已刀弥々乃弥已等時、奉仕、巷宜名有明子大臣、為領、及諸臣等讚云、(奈良県元興寺露盤銘)

上宮記曰、一云、凡牟都和希王娶經侯那加都比古女子名弟比弥麻和加、生兒若野毛二侯王、娶母々思已麻和加中比弥生兒大郎子、一名意富々等王、妹踐坂大中比弥王、弟田宮中比弥、弟布遲波長已等布斯郎女四人也。(上宮記逸文)

17) 澤瀉久孝·森本治吉『作者類別年代順萬葉集』에 의하면 ‘제1기 ~672년, 제2기 673년~710년, 제3기 711년~733년, 제4기 734년~759년’으로 구분하였다.

예의 순서대로 ‘アメクニオシハラキヒロニハノミコト’, ‘トクミケカシキヤヒメ
ノミコト’·‘ウマヤドトクトミミノミコト’, ‘モモソコ¹⁸⁾マワカナカヒメ’와 같이,
里·巳·思가 각각 /rö/·/jö/·/sö/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ö/로 사용되었
으며, 그 시기 또한 里와 巳는 推古 4년 즉 596년이며, 上宮記逸文 또한 推古
시대(593~628년)이므로 절운(切韻 600년)의 편찬 시기와 비슷하지만, 한자음
의 전래가 절운보다는 훨씬 이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고음 이전 시기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중고음 이전에는 之운이 /ö/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萬
葉集를 보면 巳는 /i/로만, 思는 /si/로만 나타나는데 반해, 里는 약 643예가 존
재하는데 훈독자 サト의 표기로 쓰인 64예를 제외하면 나머지 577예는 음차자
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575예는 /ri/로 그리고 나머지 두 예에 /rö/의 사용이
보인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牟浪他麻乃 久留爾久枳作之 加多米等之 以母加去去里波 阿用久奈米加母(萬葉
集 권20 4390번)

久爾具爾乃 夜之里乃加美爾 奴佐麻都理 阿加古比須奈牟 伊母賀加奈志作(萬葉
集 권20 4391번)

이 두 노래는 제4기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ri/로 즉 /i/로 반영되어야 하지
만 /ö/로 사용되었으므로 예외로 보기 쉬운데, 사키모리우타(防人歌)라는 점에
서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이 두 노래의 작자는 각각 刑部志可麻呂와 忍
海部五百麻呂로 전자는 狹島郡 출신이고 후자는 結城郡 출신으로 4394년의 좌
주(左注) ‘二月十六日下総国防人部領使少目從七位下県犬養宿祢淨人進歌数廿二
首 但拙劣歌者不取載之’에 의하면 지금의 千葉県에 속하는데, 편찬자인 大伴家
持가 노래의 원문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중앙언어와 지방언어간의 표기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즉 지방언어의 표기의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상의 두 노래의 里의 /rö/표기의 사용은 한자음의 변천 즉 중국 성운학의 변
천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표기가 한자음의 변천을 중앙언
어와 지방언어의 표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고음 이전의 /ö/의 반영과 중고음 시기의 /i/와 /i/의 반영에
의해 필자는 중고음을 [i^o]와 [iⁱ]로 추정하는 것이다. 중고음의 3등 [i^o]는
고대 일본어의 /i/ 즉 음성학적으로는 [ji] (또는 [jil])인 이을류의 중설적인 요
소를 개구개음과 핵모음으로 이루어진 [i^o]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18) 大野透(오오노 토오루 1962:110)의 설명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른다.

갑을류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운미음 [i]에 의해 /i/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4등의 [i^o]는 강한 개구개음 [i]와 운미음 [i]에 의해 약한 핵모음 [ɨ]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어 탈락함으로써 /i/의 표기에 매우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고음 이전의 之운의 /ø/의 반영은 중고음 이전 시기에는 [ɨi]와 [iɨ] 즉 강한 핵모음을 지닌 음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¹⁹⁾

셋째, 베트남한자음과 티베트한자음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베트남한자음은 주로 치두음이 u[w]로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73.8% 해당하는 자는 i/y[i]로 반영되었고, 티베트한자음은 성모에 따른 차이가 없이 대다수가 i/[i]로 반영되었는데, 두 한자음 모두 3등과 4등에 따른 차이가 없이 [i]로 반영되었다는 점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 준다. 첫째, 중고음의 핵모음이 강한 핵모음이 아니라 약한 핵모음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운미음이 [i]이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고 재구음이 '3등 [ɨ^o]·4등 [i^o]로 추정된다. 핵모음 [ɨ]는 중고음 이전에는 萬葉假名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핵모음 [a]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반영이 베트남한자음에서는 'cơ 姬基箕; thời 時'와 같이 o'[a]와 o'i[ai]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티베트한자음에서는 음운 체계상 [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a]가 중고음에 이르러서는 핵모음의 약화로 반영이 되지 않아 두 한자음 모두 [i]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베트남한자음에서 [i]와 [w] 이외의 반영에서 [a]를 제외하면 [ui][ai]로 반영된 예에서 운미음은 [i]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티베트한자음에서도 '時 ç'i[ciil]'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운미음 [i]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핵모음의 약화와 더불어 3·4등 개음이 운미음과 같은 [i]이므로 두 한자음에서 [ɨ^o]·[i^o]가 중고음에서는 [i]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티베트한자음에는 유일한 예이기는 하지만, 記가 gjil^ogjil(=[^og ɨil])로 반영된 예가 존재한다. 즉 gi가 아니라 반모음인 [j]를 동반한 예인데, 이 [j]는 [ɨ^o]의 반영인 유일한 예일 가능성이 크다. 김대성(2012:5-29)에서

19) 특히 중고음 이전 시기음의 음차자 표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영향 하에 있었고, 한반도의 표기 방식 또한 보다 폭 넓은 다시 말하면 운모의 경우 MVE(Medial+Vowel+Ending)도 표기자로 사용하였지만, 후대로 내려갈수록 가능하면 V로 이루어진 - 물론 /i/와 /e/의 표기의 경우 고대 일본어가 이중모음이었으므로 MVE를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음(예를 들면 魚운)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따라 (또한 중국 성운학의 변천도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之운의 /ø/의 사용은 표기의 보수성을 제외하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순음의 경우 네 가지 자료 모두 yi[ji]로 반영되었는데 순음의 순음성에 의해 합구개음이 흡수되었다. 그런데 3등 개구개음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등개음이 만일 [ɨ]이었다면 핵모음 [i]에 흡수되기 때문에 [i]로 반영되었거나, 같은 순3등운인 支脂운과 같이 핵모음이 약한 경우²⁰⁾에는 개구개음 [ɨ]와 핵모음이 강한 운미음 [i]에 의해 흡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微운은 개구개음 [ɨ]와 핵모음과 운미음이 [i]이기 때문에 즉 핵모음과 운미음이 같기 때문에 개구개음을 인식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개구개음의 차이를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j]의 반영은 개구개음 [ɨ]로 추정된다.(pp.25-26)

와 같이 밝힌 바 있는데, 之운의 개구개음과 핵모음 [ɨ^o]가 핵모음 [^o]에 의해 개구개음 [ɨ]가 어느 정도 중설로 이동하면서 마치 [ɨ]와 같은 음색을 띠므로서 [j]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해두는 선에서 그치도록 한다.

20) 다음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参考文献】

- 김대성(2003) 『고대 일본어의 음운에 대하여』, 제이앤씨. pp.109-148
- 김대성(2012) 「止攝 諸韻의 中古音 再構」, 일본문화학보 52.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9
- 김용옥(1992)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pp.349-361
- 박병채(1986) 『고대국어의 연구 -음운편-』, 고려대학교출판부. pp.188-191
- 이돈주(1990) 「향가 용자 중의 ‘賜’자에 대하여」, 국어학 20. 국어학회. pp.72-89
- 大野透(1962) 『万葉仮名の研究』 明治書院. p.110
- 沢瀉久孝(1990) 『万葉集注釈 卷第一』 中央公論社. pp.55-56
- 沢瀉久孝·森本治吉(1976) 『作者類別年代順万葉集』, 芸林舎.
- 河野六郎(1993) 『河野六郎著作集 第2卷』, 平凡社. pp.103-111
- 小島憲之外(1994-1996) 『万葉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小島憲之外(1994-1998) 『日本書紀(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上代文献を読む会(1989) 『古京遺文注釈』, 桜楓社.
- 高木市之助外(1957-1962) 『万葉集(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 藤堂明保(1980) 『中国語音韻論』, 光生館. pp.264-265
- 藤堂明保外(1971), 『音注韻鏡校本』, 木耳社. pp.24-25
- 西宮一民(1988) 『日本上代の文章と表記』, 風間書房. p.29-37
- 荻原麻男外(1976) 『古事記·上代歌謡(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平山久雄(1966) 「切韻における蒸職韻と之韻の音価」, 東洋學報 49-1. 東洋文庫. pp.42-68
- 三根谷徹(1993) 『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 汲古書院. pp.455-456
- Bernhard Karlgren(1963)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pp.263-266
- E.G.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203-204
- 董同龢(1993)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pp.166-168
- 陸志韋(1985) 『陸志韋語言學著作集(一)』, 中華書局. pp.44-48
-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p.43
- 王力(1985) 『汉语语音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pp.226-227
- 严学窘(1990) 『广韵导读』, 巴蜀书社. pp.73-74

要 旨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y reconstruction *Zhi* rhyme(之韻) [ʝi] and [iʝi] in *Zhi* rhyme group(止攝), using the literature on Sino-Korean, *Manyō Kana* or Japanese phonetic alphabet, Sino-Vietnamese and Sino-Tibetan.

To sum up, the following grounds can be considered : (1) In fourth division all the initials in *Zhi* rhyme except apical sibilants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Pre-Ancient Chinese are /ㅇ/ in Sino-Korean, whereas in third division especially velars and laryngeals are /의/. The fact that Sino-Korean has vowel /으/ of final /의/ in velars and laryngeals implies it had central vowel in Ancient Chinese. ; (2) In third division except velars that have the other /i/ or /i/ in *Manyō Kana*, all the other initials are /i/ in *Zhi* rhyme, and in fourth division all the initials are /i/. However, in Pre-Ancient Chinese *Manyō Kanas* as 思里已 are /sö/·/rö/·/yö/, that is, the other /o/ or /ö/, which means that vowels in *Zhi* rhyme are strong and central [ə]. In Ancient Chinese the weakening of [ə] in [ʝi] and [iʝi] may be suitable for /i/. ; (3) In Sino-Vietnamese and Sino-Tibetan the third and fourth divisions are rendered as /i/ in all the initials except dentals's [w] in Sino-Vietnamese. The fact tells us two assumptions: vowel might be weak and ending [i]. In Sino-Vietnamese we can trace the vowel [ə] in *Zhi* rhyme that may be rendered in Pre-Ancient Chinese.

キーワード : 止攝(*Zhi* rhyme group), 之韻(*Zhi* rhyme),
 중고음(Ancient Chinese), 재구(reconstruction),
 한국전승한자음(Sino-Korean),
 萬葉假名(*Manyō Kana* or Japanese phonetic alphabet),
 베트남한자음(Sino-Vietnamese), 티베트한자음(Sino-Tibetan),
 3·4등단운(the mixed finals)

투 고 : 2012. 8. 31
 1차 심사 : 2012. 9. 15
 2차 심사 : 2012. 10. 6